

멀티 플레이형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전영선* · 이경화* · 이철희** · 서태원***,†

*안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안동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안동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Educational Program Plan to Train The Multi Professional Person

Young-Sun Jeon* · Kyung-Hwa Lee* · Cheol-Hee Lee** · Taewon Seo***,†

*Center for Innovative Engineering Educ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late industrial structures have been changed rapidly. Thus the educational institutes and businesses should be able to react with speed to the change of paradigm. The importance of talent who is taped and leads to epochal and social trend of change has been strongly emphasized. Recently with the phenomena of technical fusion and composit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requested talent by an enterprise is the multi professional person who has the diverse professional technology and the ability of the solving problem. Changing a person who requires from an enterprise the upbringing goal of the educational institute undergo a great many changes. Thus analyzing the required talent by an enterpr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ducational program to train the multi professional person by the example of the operation of innovative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financially supported by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The Multi Professional Person, Innovation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ve Agenda, Engineering Education Model

1. 서 론

21세기 사회의 모습은 정보기술에 인간의 창의력이 결합된 지식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었다.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가속화로 기업간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모습도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성실성과 근면성이 최고의 덕목이었지만, '세계화 시대' 속에서는 '변화되는 시대를 이끌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가진 인재'가 다가오는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이다. 이제는 범용성 인재보다는 도전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1,2)}.

온라인 리쿠르팅 업체인 잡코리아가 2004년에 국내 1013개 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사담당자의 26.6% (269개 업체)가 가장 선

호하는 인재로 “창의성과 상황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도전정신과 추진력(26.1%)”,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형 인재(24.3%)”, “유연성 및 변화 적응력이 있는 사람(11.6%)” 순이었다³⁾. 무난하게 집단 속에 묻혀가는 사람보다는 기존의 것과 차별화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을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에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순발력, 창의적 사고를 통한 유연한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인재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인재상의 변천

1970년대~	노동집약 산업 구조하에서 책임감, 성실성, 인간관계 원만성을 중시함.
1980년대~	산업발전과 분배욕구 증대로 협동성, 직업의식, 사명감, 책임성 등 집단주의 덕목 강조
1990년대~	국제화, 개방화, 가속화로 능력중심의 창의성, 전문성, 도전성 등 개인주의 덕목을 중시함
21C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초고속 정보망의 출현으로 세계화, 창조화가 중요함.

Received 23 August, 2011; Revised 29 September, 2011

Accepted 20 October, 2011

† Corresponding Author: dongjin@andong.ac.kr

본 연구에서 말하는 멀티플레이형 인재란(The Multi Professional Person)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다양한 학문적 전문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첨단 기술 변화를 감지하고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인재를 뜻한다4). 현재 기업체는 많은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지만, 취업자의 전공/경력은 기업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 취업 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투자 심리 위축과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인력 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인력 개발, 교육 등에 대한 투자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저하, 우수학생의 수도권 집중 및 이공계 기피, 지역 특성화 전략과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학교육이 실기, 실무 중심보다는 이론, 학습중심에 치중되어 있으며, 실무형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5).

기업에서는 취업과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엔지니어 인력의 배출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자원의 조건과 수급환경을 고려할 때 실무능력개발 중심의 공학교육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체 협업형 공학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 및 교수와 산업체와의 높은 연계성을 유도하며, 각 전공별로 성장동력 산업

과 관련이 높은 특성화된 공학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주관하여 산업체 협업형 공학교육체계의 모델을 제시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형 전문공학인”을 양성하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제 2장에서는 실무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형 전문 공학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이에 따른 결과 및 고찰에 대하여 논하고, 제 4장에서 기대효과 및 성과를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II. 멀티플레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법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점 전략 도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의 AS-IS를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AS-IS 분석에 따르면, R&D 인력에 비해 엔지니어 인력이 평균적으로 93.8%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취업자 분포에 따르면 취업자의 대다수가 인근 경북지역 (46.3%)과 서울, 경기 지역 (36.7%)에 분포하고 있다. 2차적으로 교육기관의 Input, Process, Infra, Output 요소를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으로 나누어 SWOT표를 작성하였다(표 2 참조). 표 2를 바탕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중점 전략 도출에 대한 그림 2와 같이 7개 공학교육 혁신 의제를 선정하였다.

본 교육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1,300만 경상도 시민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산업공단을 개발할

표 2 SWOT Matrix를 이용한 중점 전략 도출

내부 \ 환경	O(기회)	T(위협)
S (강점)	SO 전략(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중점 추진) 특성화된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심화프로그램 특성화 지원 - 공학교육인증제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교육	ST 전략(위협을 피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 공학교육의 개선지원 - 심화프로그램 특성화 지원 - 우수 산학프로그램의 지원 - 공학교육 세미나 개최
	실무 중심의 교육 강화 -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산업체 네트워크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 - 산업체 협업형 Capstone Design 교과목 운영 - 실무개발 활동 지원
W (약점)	WO전략(약점을 극복하면서, 기회를 활용) 공학 교육방법의 혁신 - 실습, 설계, 실험교육 강화 - 산학네트워크를 통한 협업교육 프로그램 강화 - 웹기반공학교육체계 구축	WT전략(약점을 최소화하고 위협을 회피) 행정시스템 개선 - 산학 협업 네트워크 전담 인력 확보 - 인터넷을 통한 행정 업무 지원
	교수 평가 - 설계 담당 교수의 인센티브 제공 - 공학교육혁신에 대한 평가제도 구축	교육방법 개선 - 공학교육우수대학 견학 -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하기 위한 대안 마련 -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된 교육방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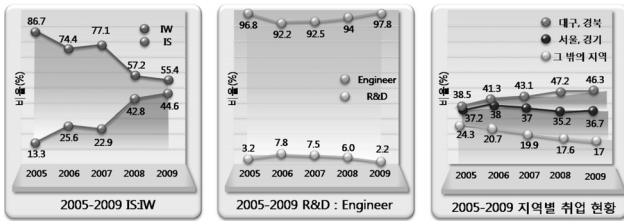


그림 1 교육기관의 AS-IS 분석(2005년~2009년 기준)



그림 3 Co-Education Network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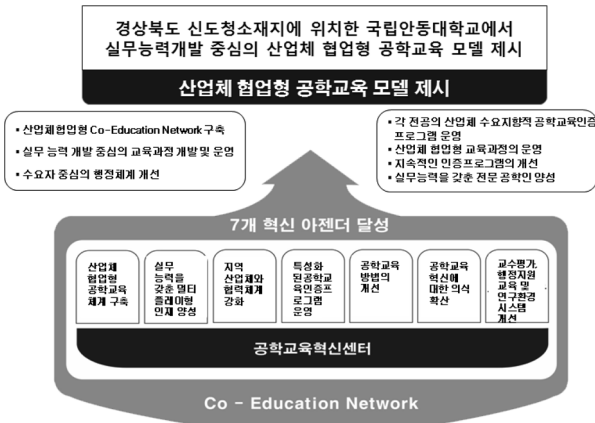


그림 2 산업체 협업형 공학교육 모델 제시

수 없는 매우 취약한 곳이다. 이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주요 산업 지역과의 원거리를 극복하고 실무능력 개발 중심의 산업체 협업형 공학교육을 위하여 구성원 간 (학생, 산업체인사, 교수, 직원)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Co-Education Network”(http://coed.andong.ac.kr/)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구축된 Co-Education Network을 통하여 구성원 간에 학기중의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와 방학기간의 산업체 인턴십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현업에 대한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춘 공학인을 양성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1. 산업체 협업형 공학교육체계 구축

본 센터는 산업체 협업형 공학교육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특정산업 중심으로 60여개의 협력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력업체는 각 학과의 전공분야와 관련성이 높거나 본교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o-Education Network 서버를 구축하였고, 설계자문시스템 구축 및 웹진기능, 통합검색, 웹메신저 기능을 추가하여 공학교육혁신 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시켰다. 설계자문시스템이란 공과대학 교수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주된 연구 분야, 개발 제품, 특허, 전문기술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설계자문시스템이다.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타 학문 분야의 지식을 검색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완성된 프로젝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학생과 전문가(설계교육자문단)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학생, 교수 자문활동에 따른 상호간의 학문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3차년도에는 동료자문시스템인 아띠랑을 개발하였다. 아띠랑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나 수업에서 생긴 궁금한 사항을 선·후배와 친구들과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아띠랑을 통해 서로 전공이 다른 선·후배 학생들끼리 프로젝트나 특정 관심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산업체 협업형 공학교육혁신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본 센터는 구축된 Co-Education Network 서버를 이용하여 “Co-Education 산업체 멘토링 기반 설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과별로 협약이 체결된 Co-Education 협력업체 중에서 실무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고 각 학과별 Capstone Design수업에서 팀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6).

그림 3은 구축된 “Co-Education Network”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관리 지원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관리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생·교수·산업체 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개의 다양한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65명의 산업체 멘토가 활동하였다.

2. 실무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형 인재양성

공학교육혁신사업 1차년도는 학과별 산업체 기술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산업체에서 바라보는 필요 교과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융합교과내용을 도출하고 공학도의 경영적 소양을 위한 엔지니어링 경영학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운영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특히 공학교육혁신센터는 3차년도의 중점 사업으로 “Co-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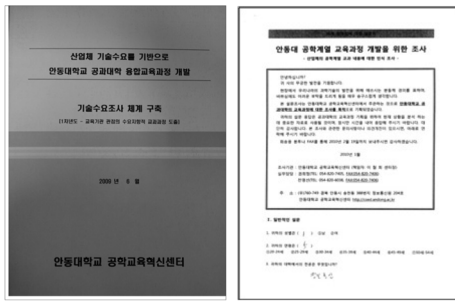


그림 4 산업체 기술 체계 구축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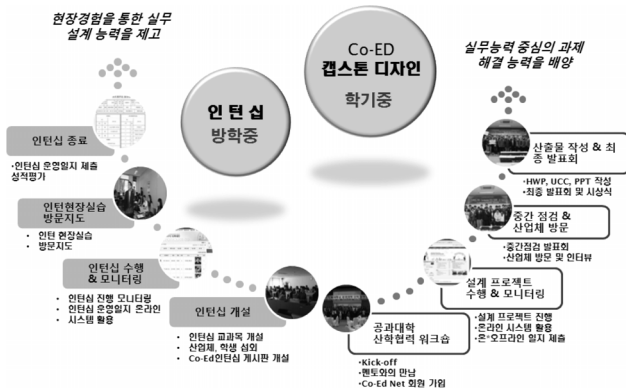


그림 5 산업체 멘토링 기반 설계 교과목 운영 및 Co-Ed 협력업체와의 인턴십

협력업체 인턴십(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 기존 산업체 멘토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학기가 종료됨에 따라 연속성이 결여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학기중의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와 방학기간의 산업체 인턴십을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참여 기회가 강화되도록 유도하였다(7).

그림 5는 산업체 멘토링 기반 설계 교과목 운영 및 Co-Ed 협력업체와의 인턴십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4차년도인 2011년은 Co-Ed 협력업체 인턴십(현장실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체의 현장 실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체의 현장 실무 전문가의 교육 참여를 통하여 학과에서 요구하는 실무 지식을 함양하고 학생들과 현장 실무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3.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본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핵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는

Co-Education Network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체와 협업하는 공학교육 모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본 센터는 학생, 산업체인사, 교수, 직원등 대학과 협력기관과의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 Co-Education Network Server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Co-Education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Co-Education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학생들은 산업체 멘토로부터 실무 능력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익히고, 산학자문위원의 초청 강연을 통하여 공학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산학 협력 체계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매년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학공동전문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산업체와 대학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Co-Education Network에 협약이 체결된 60여개의 협력업체 소개 페이지를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협력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 및 교수, 산업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III. 결과 및 고찰

공학교육혁신센터는 2009년 1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Co-Education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종료 시 Co-Education Network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 한 학생은 총 124명이며, 설문은 객관식 7개, 주관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Co-Education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 후 습득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답은 “설계능력 향상”이며, “설계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향상”이 61명, “기획능력향상”이 48명, “실무처리능력 향상”이 55명, “서류처리능력향상”이 38명, “장비활용능력향상”이 37명, “습득한 지식 없음”이 20명, “기타” 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이는 Co-Education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설계능력과 실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o-Education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 예산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체 협업형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와 협력업체 인턴십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설계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실습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전공 별 동아리를 2개 이상 융합하여 설계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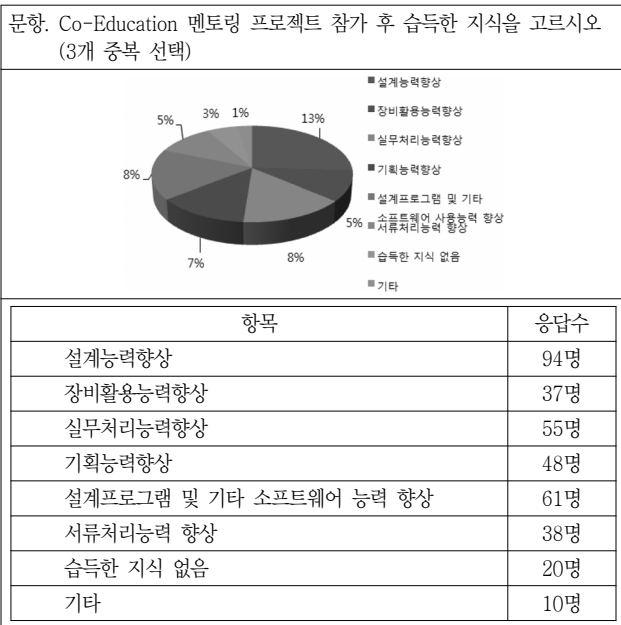


그림 6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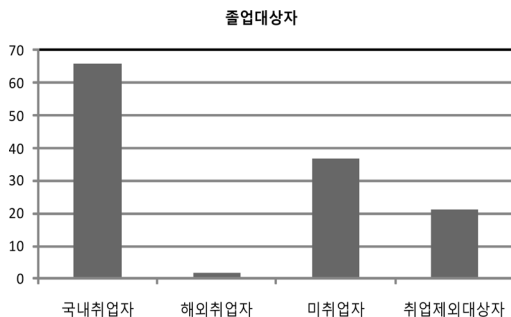


그림 7 졸업대상자의 취업률 현황

Co-Education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산학연계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수행 결과물을 도출함과 동시에 참여 학생들의 실무 능력개선을 통하여 취업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림 7은 Co-Education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와 취업자 현황을 나타낸 결과이다. 2009년과 2010년에 Co-Education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는 모두 159명이다. 이 중 졸업대상자인 126명 중 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실 취업대상자 중 65%의 학생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은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한 업종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생들의 진로는 제조업과 IT, 웹 및 통신업체에 진출이 58.8%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업종별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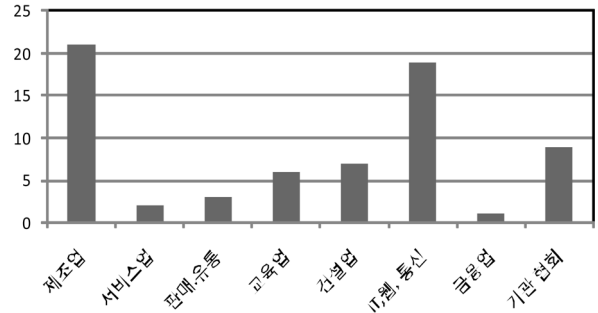


그림 8 업종별 취업률 현황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비참여 학생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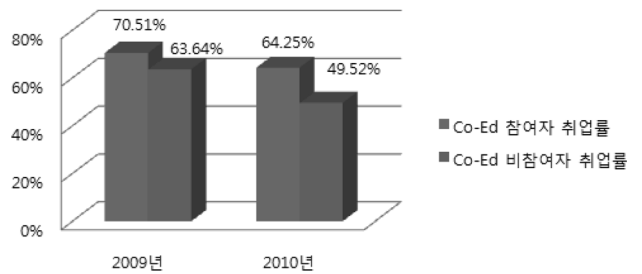


그림 9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비참여 학생 취업률 비교

그림 9는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따른 취업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2009년도에는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자의 70.51%가 취업을 하였으며, 비 참여에 비해 취업률이 6.87% 더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취업률은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자의 64.25%, 비참여자의 경우는 49.52%로 나타났다.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자의 취업률이 비참여자에 비해 약 15%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무 경험이 많은 산업체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역량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Education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산업체 멘토와 함께 실무능력 중심의 설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협력업체에서 선호하는 인재로 양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목표인 멀티 플레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본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산업체와 협업하는 공학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멀티플레이형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체 협업형 Co-Education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산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체, 동문 졸업생들의 의견을 수렴, 교과과정과 교수 학습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또한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공학도를 배출하기 위해 구성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식정보를 재생산하거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설계 재료비를 지원하고, 협력업체 참여 멘토에게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턴십 지원, 산학협력 워크숍 및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등 산업체 협업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구축된 Co-Education Network 서버를 이용하여 산업체 멘토링 기반 설계 프로젝트가 운영되었으며, 개발한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거리에 대한 제약을 해소시켜, 실시간 또는 동시시간대에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생·교수·산업체 간에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2. Co-Ed 협력업체 인턴십(현장실습)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체의 현장 실무 전문가의 교육 참여를 통하여 학과에서 요구하는 실무 지식을 함양하고 학생들과 현장 실무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Co-Education Network를 이용하여 지역산업체와 교육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기업환경소개 CEO특강, 산학협력위원회 및 산학공동전문위원회, 기술지도등의 지원을 통해 산학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4.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자의 취업률이 비참여자에 비해 약 7~15%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Co-Education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실무 능력이 향상되어 산업체에서 취업 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공학교육혁신사업으로(과제명: 산업체 협업형 실무능력개발 공학교육 혁신사업) 지원되었기에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이만표(1999). 한국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재특성에 관한 연구, **산업교육연구**, 6.
2. 이병욱(2008).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세미나**, 전국경제인연합회.
3. 김화수(2004). 인재상에도 역사적 변화가 있다. http://www.jobkorea.co.kr/Knowledge/How_View.asp?K_Index=290&Search_K_Div=1.
4.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인력과(2006), **공학교육혁신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가 한자리**.
5. 송동주(2003) **공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공학교육과 기술.
6. 박수홍·정주영·류영호(2008), 창의적 공학교육을 위한 캡스톤디자인(Capstion Design)교수활동지원모형개발, **수산해영교육연구**, 20(2) 통권 제 41호.
7. 임강빈(2009) 공학교육인증 체제의 지역대학을 위한 산학협동 과제 기반 실무인력양성 모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9(1).



전영선 (Jeon, Young-sun)

2007년: 안동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2009년~현재: 안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재직
관심분야: 공학교육연구, 공학교육인증
Phone: 054-820-6038
E-mail : abeek@andong.ac.kr



이경화 (Lee, Kyung-hwa)

2004년: 안동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졸업
2009년: 동 대학원 멀티미디어공학과 석사 수료
관심분야: 공학교육인증, 공학프로그래밍
Phone: 054-820-7405
E-mail: ciee@andong.ac.kr



이철희 (Cheol-Hee Lee)

2000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2003년9월~현재: 안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칼라영상처리, 색채공학, 칼라 프린팅 등
Phone: 054-820-6190
Fax: 054-820-6164
E-mail: chlee@andong.ac.kr



서태원 (Seo, Taewon)

1993년: LSU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1996년~현재: 국립안동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공학인증, 공학교육, 의공 융·복합교육
Phone: 054-820-5756
Fax: 054-820-7406
E-mail: dongjin@andong.ac.kr